

Style 1 조선일보

MAY 2023 vol.253



RALPH LAUREN



SUBLIMAGE LA CRÈME

피부 활력과 송고한 광채를 깨우는 궁극의 스킨케어

샤넬의 독자적인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성분은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한 활성 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수블리마지 포뮬러는 피부에 활기를 되찾아주며,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집중 작용 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된 피부를 느껴보세요.

*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지표.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감, 피부 편안함, 주름, 탄탄한 피부, 균일함, 피부 강화, 광채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SEAMASTER AQUA TERRA SHADES
Co-Axial Master Chronometer

EVERY SHADE OF YOU

에디 레드메인은 새로운 아쿠아 테라 컬렉션을 통해 컬러가 지닌 힘을 활용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합니다. 이 매력 넘치는 배우처럼 오메가 아쿠아 테라 타임피스는 여러 역할을 마스터하여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톤을 선사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8mm 모델은 5가지 유니크한 다이얼 컬러로 선보입니다. 모든 타임피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정밀성과 탁월한 항자성을 인증받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뛰어난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컬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quaTerraShades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고점 롯데 에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DIOR



16



23

Style 조선일보
MAY 2023

이번 시즌, 랄프 로렌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난다. 스포츠, 웨스턴, 프리미, 그리고 캐주얼 리서치를 마주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캘리포니아 드레싱,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담은 랄프 로렌의 컬렉션을 만나 보자. 문의 02-3467-6560



26



12

- 15 **ATOUCH OF COLOR** 세대를 아우르는 오묘하고도 강렬한 컬러감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유색링.
- 16 **수직의 도시에서 추구하는 수평의 미학** 현대 도시에서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미술관, 특히 동시대 미술을 담은 그릇인 컨템퍼러리 미술관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장품이나 기획전 같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축을 둘러싼 화제성을 거머쥐어야 언론과 대중의 눈길을 잡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아키텍트(starchitect)'로 불리는 스타 건축가들을 동원해 압도적인 건축미를 품은 미술관을 선보이는 전략이 창조 도시를 향한 여정의 필수 과제처럼 여겨진다. 물론 대형 미술관 프로젝트를 떠내려가는 건축계의 경쟁 역시 치열하다. 소프트 파워를 우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사례 아닌가. 일찍이 예술에 앞서 공간에 도취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작금의 인스타그램 시대에는 이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공간 창조자인 건축의 스타성은 더 중시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팬데믹의 급속도로 집콕을 낳아서는 공간에의 갈망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술관은 꽤 괜찮은 해소책이 되기도 한다. 그저 모이는 장소나 과거와는 배경만 다를 뿐 작품과 마주하며 관조하는 공간으로서도 말이다. 긴 공사를 거쳐 팬데믹 기간에 드디어 공개된 홍콩의 미술관 M+를 설계한 Holm의 건축가 피에르 드 뉘론(Pierre de Meuron)이 소망하듯 좋은 예-나를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테고 말이다. '뮤지엄, 그 이상(+)'을 품어내고 싶은 M+ 사례를 통해 문화 예술 공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자.
- 20 **WHITE TREASURE** 신비로운 비드속 전설처럼 오묘하고도 영롱한 매력을 발산하는 모던 진주 주얼리.
- 21 **RUBBER LOVER**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전하는 것은 물론, 실용적이고 편안한 러버 스트랩 워치 컬렉션.
- 22 **SHADOWS ON YOU** 눈부신 계절의 시작,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줄 아이웨어 컬렉션.
- 23 **INFINITE CREATIVITY** 에르메스의 홈 컬렉션은 독창성과 가치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퍼포먼스까지 모든 것이 남달랐다. 경이와 환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축제 의 현장.
- 24 **CRUSH ON YOU** 송고한 유망과 대범한 도발,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의외성에서 발견한 미학을 담은 사넬의 코코 크리쉬 2023 컬렉션. 곡선을 가로지르는 깔끔하고 균일한 커팅이 눈에 띄는 피스들은 함께 레이어링했을 때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 26 **GIFT IDEAS**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5월이 성큼 다가왔다. 주얼리, 워치, 패션, 뷰티 등 취향별로 주고받는 의미의 마음을 충족시킬 기프트 컬렉션.
- 44 **MAGICAL CARE** 단 한 번 병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다줄 궁극의 뷰티 리추얼.
- 45 **LIP LOVE** 매일 뭉개버릴지 고민하는 그대가 꼭 주목해야 할 이번 시즌 뉴립스틱.
- 46 **EDITOR'S PICK** 낮과 밤의 기온차로 애매해진 피부가 고민이라면, 5월의 뷰티템을 주목하자.

Style 조선일보

Issue.253 May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한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혜·재민 리은 인세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0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드립니다. 역사적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Hermès,
cavalier jewellery

Publicis EtNous

태양을 즐기는 방법

피할 수 없다면 피하자. 분할 강한 햇빛을 아껴볼 상상 자외선 차단제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녜사 데이 세럼 SPF 50+ PA++++** 광합성 원리에서 탄생한 선 듀얼 케어™ 기술을 적용해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춘 데다 스킨케어까지 가능한 세럼형 선 케어 30ml 4만2천원. 문의 080-564-7700 **클레드페우 보베 UV 프로텍티브 크림 N SPF 50+ PA++++**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는 적색광 투과 피부다와 피부 속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모코신 타임 추출물을 함유했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 50ml 16만원. 문의 080-564-7700 **스쿠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 SPF 50+ PA++++** 워터브루프 효과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촉촉한 재형으로 보습력이 있다. 또 피부에 표면 처리 기술로 들뜸 현상을 완화해준다. 30g 8만1천원. 문의 02-6905-3369 **포토그래피 김사은 인턴 에디터 신장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클래식의 미학

브레게인의 섬세한 매력으로 재해석해 선보인 클래식 7337 컬렉션. 독보적인 미학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채 현대적인 매력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오프센트 다이얼에서는 클루드 파리(Claus de Paris) 모티브의 기묘세 패턴 마감을, 외부 다이얼에서는 보리 낱알 모티브 장식을 확인할 수 있다. 12시 방향에 자리한 문패이즈는 현실감 있는 디자인으로 매력을 더했으며, 글리터 파우더를 포함한 블루 래커로 코팅한 문 디스크는 별이 수놓인 하늘을 연상시킨다. 또 각각 낮 2시와 밤 10시 방향에 자리 잡은 날짜와 요일 인디케이터를 큰 사이즈로 완성해 가독성을 높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 클래식 7337 컬렉션은 직경 39mm 케이스로 18K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소재이며, 화이트 골드 모델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스트랩으로, 로즈 골드 버전은 미스데리 브라운 컬러의 스트랩으로 선보인다. 5천원만 원대. 문의 02-3467-8335



IGNATURES OF DESIRE

여떠한 디자인보다 하우스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 하나만 충분하다. 로고 배를 포인트로 삼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렌드의 시그니처인 YSL 금속 잠금장치로 포인트를 더했다. 캔버스 소재에 브라운 컬러의 송이자극으로 아우터라인에 디테일을 더한 카산드라 미니 톨 핸들 백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인디니 비카벨로**. 문의 02-6105-2228. 탈착 가능한 핸들을 활용해 클라치와 토트백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시그니처 FF 로고가 특징인 양가죽 소재의 바게트 백 4만원 원대. 문의 02-544-1925. 파스텔 톤의 핑크 컬러에 메탈 로고가 하우스의 개성을 전한다. 또 스트랩이 있어 슬더 및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송이자극 소재의 브이 로고 타입 백 3만1천원 **발렌티노 가리비니**. 문의 02-2015-4655 포토그래피 **최인연 인턴 에디터 신장림**



LA VIE EN ROSE

1968년부터 선보인 부쉐론의 아이코닉 세팅 보행 컬렉션은 다이아몬드 세팅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유색석으로 재탄생되며 더욱 돋보이기 시작했다. 자수정, 오파스, 화이트 머더오브필, 라피스 라줄리를 다채롭게 세팅했고, 이번 시즌엔 라비앙 로즈(La Vie en Rose), 즉 장맛빛 인생을 담고 있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따뜻한 빛을 더하는 핑크 퀴츠의 파스텔 톤은 링,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그리고 이어링에 모던함과 우아함을 더해준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드림 모티브 핑크 퀴츠의 부드러운 색조가 녹아 있고, 트윙스트 체인에는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팅 보행 팬던트, 로즈 골드 비즈가 다이아몬드 모티브와 파스텔 톤 핑크 퀴츠를 부드럽게 감싸는 세팅 보행 더블 모티브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드림 모티브와 핑크 퀴츠 세팅 드림 모티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팅 보행 더블 모티브 싱글 스트러 이어링. 문의 02-3213-2246



흰 도화지를 연상시키는 갤러리 건물의 비탄성처럼 '화다'라는 뜻의 라틴어이자 '그림책', '화집'의 어원이기도 한 'albus'라는 이름을 지닌 알부스 갤러리. 서울 한남동에 자리한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갤러리로 인지를 다져가고 있는 알부스 갤러리에서 이번에는 흥미로운 폴란드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펼친다. 폴란드 문화원과 알부스 갤러리가 공동 주최한 전시 <폴란드 일러스트레이션의 거장들(Masters of Polish Illustration)>로 지난해 순천에서 열린 전기를 서울로 옮겨와 새 단장했으며, 일부 작가의 경우 더 많은 원화 작품을 선보인다. 1930년대 아일가르드 예술가부터 가장 최근의 포스트모던 그림책까지 거의 1세기에 걸친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폴란드 일러스트레이션 학파'로 알려진 1960년대와 1970년대, 절의 그림 뒤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 거장들의 귀중한 원화를 표창하고 있다고.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채로운 일러스트레이션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기회다. 네이버 사진 예문제로 운영한다. 6월 7일까지.

Masters of Polish Illustration

Be Happy!

소파드에서 스스로의 에너지로 경쾌한 춤을 추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여성을 위한 해피 스포츠 컬렉션의 뉴 워치를 출시했다. 5개의 중심 다이아몬드와 신하하는 경이감을 표현하고자 가장 작은 버전인 25mm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진주처럼 반짝이는 실버 컬러 다이얼은 시선을 부드럽게 잡아준다. 또 윤리적인 골드 소재와 스틸을 사용했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버전, 윤리적인 18K 로즈 골드로 크라운과 카보숑을 제작하고 광택을 낸 베젤을 장착한 스틸 버전, 윤리적인 18K 로즈 골드로 크라운과 카보숑을 제작하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베젤을 더한 스틸 버전 등 총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6905-3390



전설에 매혹되다

향수는 단순히 좋은 향기가 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과 분위기 등을 반영하기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개성과 매력적인 향을 지닌 향수 하나를 추천한다. 주얼리 & 워치 매종 까르띠에에서 출시한 라 판테(La Panthere) 퍼퓸이 바로 그것. 향수 이름은 매종의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진느 투상의 별명이기도 하다. 향 역시 매력적인 동물 판테를 연상시킨다. 다양한 플로럴 노트와 관능적인 향이 만나 유니크한 플로럴 어코드를 선사하며, 색다른 조화로 다른 향수와는 차별화되는 우아한 느낌을 전달한다. 매종의 조향사 마테오 로랑의 작품으로 오 드 퍼퓸과 오 드 파퓸, 퍼퓸으로 선보인다. 그중 라 판테 오 드 퍼퓸은 상쾌하고 플로럴한 머스크 향을 담았다. 75ml 16만원. 문의 1877-4326



우아함의 완성

이름답고 우아한 여성에게 추천하고 싶은 신상 백 해를 소개한다. 디올 하우스가 선보이는 디올 키(Dior Key) 백으로 디올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스타일과 대담하고 현대적인 매력에 레드톤 감성을 한 스펀 더해 완성되었다. 가장자리가 둥근 곡선을 이루는 부드러운 라인과 미니멀한 실루엣이 특징이며, 골드 레터링으로 완성한 CD 로고 장식과 열쇠 모양의 클래식 스프링을 비롯해 세련된 마감 기법이 돋보이는 요소 요소에서 디올 하우스가 사랑하는 디테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스몰 및 미디엄 사이즈로 출시되며 블랙·베이지·아이보리 컬러로 구성된다. 문의 02-3280-0104



Classy Classic

클래식한 감성과 모던한 스타일을 전하는 랍프 로렌 컬렉션에서 2023년 봄 시즌을 맞아 아이코닉한 로퍼를 출시했다. 랍프 로렌의 아이코닉한 RL 모노그램이 돋보이는 RL 할란 로퍼가 주인공. 타임리스한 로퍼 디자인에 메탈릭 RL 모티브를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한다. 베니드 카프 스킨 또는 카프 스웨이드, 두 가지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둥근 앞코 디자인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1백40만원. 문의 02-3467-6560





연한 갈색 100% 울로
워이드 밴드 스카프. 원고는
세일 22,000원, 24x20x28cm,
7년 이상 사용.



Y2K 감성을 그대로 전하는
선글라스 39만4천원 **바버리**
by 에실로르스타가.



리옹의 박물관을 찾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지컬 18K 옐로 골드 소재의 티셔츠나 옷차림
후프 이어링 7년 이상 사용.



어싱크로 무늬를
전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세팅한 바버리 스카프
링 19,000원
스워로브스키.



총 0.97캐럿 1백15개의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포멀리트
투게더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포멀리트**.

for her Selection

패셔너블함, 기능성 소재, 활동성을 고려한 디자인까지. 이 모든 걸
겸비한 스포티 룩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귀여운 느낌을 자아내며 우수한 보온성을 갖춘 글로 인터 시티
패딩 베스트 95만원 **MCM**.



100% 가죽 소재로 제작된
상세 노이즈를 시트지는 우수한 보온성을 갖춘 글로 인터 시티
패딩 베스트 95만원 **MCM**.



소녀 같은 사랑스러운 핑크색을
올리브 그린 49만원 **타이퍼리** **타이퍼리**.



벨벳한 촉감으로 포인트를 준
스포츠 핑크의 핑크-오리엔탈
라이트 블루 나트 올 화이트
8캐럿 다이아몬드
8캐럿 다이아몬드.



산뜻함을 불러올수록 화이트 워드 새틴 소재의 그레이스 워드
새틴 재킷 3백만원 **탈리 로렌 캄페리**.



중요 수납할 수 있는 앞 포켓과 허벅스의 아이코닉 패턴
다양한 디자인을 5만4천원 **로렌스 by 에실로르스타가**
70x80x33cm, 39만4천원 **로렌스 by 에실로르스타가**.

간결한 디자인이 절제된 멋을 전하는 레더의 스웨이드 소재의 H630 66만원 **호간**.



100% 가죽 소재로 제작된
상세 노이즈를 시트지는 우수한 보온성을 갖춘 글로 인터 시티
패딩 베스트 95만원 **MCM**.



공간을 줄여줄 수 있는 앞 포켓과 허벅스의 아이코닉 패턴
다양한 디자인을 5만4천원 **로렌스 by 에실로르스타가**
70x80x33cm, 39만4천원 **로렌스 by 에실로르스타가**.

- 세일 080-805-9628
- 에실로르스타가 02-501-4436
- 가니 02-6911-0749
- 타피니 02-6250-8620
- 탈리 로렌 캄페리 02-3467-6560
- 포멀리트 02-6905-3342
- 스워로브스키 02-1522-9065
- 구찌 02-3452-1521
- MCM 1600-1976
- 몽클레르 0030-8321-0794
- 파레디 골드 1533-1631
- 셀린스 by 에실로르스타가 1577-8841
-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 호간 02-3479-1593
- 타코리아 02-548-6020



swarovski.com

SWAROVSKI

스워로브스키
에디터 **홍영**



비트는 중량과 편한 착용감이
실용 소재인 나일론과 거울 코팅 소재로
제작된 스포츠용 시계 스트랩이다.



빅사이즈 렌즈가
스포츠용 감성을 더하는
선글라스 68만5천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by 에실로루스타카.



스니커즈 소재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버디
38만2천원 캠퍼.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스니커즈 같은 매력을
배가하는 코튼과 폴리에스터 소재의
바게트 백. 27X15X6.5cm, 4백만원대
렌디 by 마크 제이콥스.

for him Selection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 일상에서도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애슬레저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감각적인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테라모 스트라피프
스웨터 52만원 피라티 골드프.



유니크한 컬러감에 중앙의
로고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한 나일론
골프 비저 60만원 캠퍼티.



100% 면소재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오버사이즈 로고 자켓 33만9천원
산드로 울프.



라지 사이즈의 포켓을 더해 훌륭한
수납력을 자랑하는 백팩.
20X40X35cm, 1백55만원
몽클레르.

장신
의류
의류
의류



42mm 스틸 케이스에
플라텍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론진 스피릿
플라텍 6백10만원 몽클레르.



매력적인 그린 컬러로
가성을 더하는 리버셔블
바시 티 스노우일 세팅
1백만원 몽클레르 로렌.



아르만 단조 벨트 위스 크로노미터를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로
53X20X17cm,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레디스 스타이드 소재의 조화가 은은한 맛을 선사하는
51K 스틸 슈즈 302천원 토즈.



심플한 맛을 선사하는 로즈 골드 소재의 바늘로만
2천원 40만원 캠퍼티.

탄탄한 웨이브와 15%의 면
인양감을 선사하는 로즈 골드 소재의
슬리퍼 양말 100% 면 소재의
가죽 미팅 10만원 캠퍼티.



100%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미니 포스텐
브레이슬릿 73만원 피라티.

파라피 골드 1533-1631 크롬라츠 02-3443-0065 에실로루스타카 02-501-4436 렌디 by 마크 제이콥스 02-544-1925 캠퍼 1800-6077 론진 02-3479-1940 몽클레르 02-6441-1103 산드로 울프 02-6905-3914 몽클레르 0030-8321-0794 토즈 02-3438-6008 캠퍼티 02-2056-0170 다움렌 02-3280-0104 몽클레르 02-6004-0220 루이 비통 02-3432-1854 피라티 070-4732-0479

A Touch of Color

세대를 아우르는 오묘하고도 강렬한 컬러감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유색 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몬드 마운트 화이트 골드 루비 링 화이트 골드 골드 소재에 총 0.96캐럿의 루비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화려한 자세를 뽐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캐럴리에 가르피에 데스타네 슬리퍼에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의 오벌 컷 사파이어 1캐럿 세팅하고 주얼리 링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상세하게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프렌드 랑드 쉬크르 블루 런던 토퍼즈 화이트 골드 링 다양한 사이즈의 카본스 컷 토퍼즈가 그 자체로 존재감을 자랑하며, 블루 컬러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심플한 조화가 돋보인다. 1천1백38만원. 문의 070-4732-0479 타미니 타미니 트루 링 브릴리언트 컷 옐로 모파이트 다이아몬드가 반짝임을 배가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820 타사키 루미노 페루도트 링 약 3.4캐럿의 페루도트를 콘케이브 컷으로 세팅해 측면에서도 영롱한 색감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와 조화를 이룬 절제된 매력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68 포에버로 누도 클레시 링 메조양의 대칭한 클레시드라 컷 classica cut 01 루브로는 6.5캐럿의 에미 시스템을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링과 함께 세팅해 여성스러우면서도 젊은 감각을 일깨운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에디터 몽자경



아르만 신상인

홍콩의 새 랜드마크 M+ 수직의 도시에서 추구하는 수평의 미학



현대 도시에서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미술관, 특히 동시대 미술을 담는 그릇인 컨템퍼러리 미술관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장품이나 기획전 같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축을 둘러싼 화제성을 거머쥐어야 언론과 대중의 눈길을 잡아끌 수 있기에 소위 '스타키택트(starchitect)'로 불리는 스타 건축가들을 동원해 압도적인 건축미를 품은 미술관을 선보이는 전략이 창조 도시를 향한 여정의 필수 과제처럼 여겨진다(물론 대형 미술관 프로젝트를 따내려는 건축계의 경쟁 역시 치열하다). 소프트 파워를 우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사례 아닌가. 일찍이 '예술에 앞서 공간에 도취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작금의 인스타그램 시대에는 이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고, '공간 창조자'인 건축의 스타성은 더 중시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팬데믹의 급속도로 '집콕'을 넘어서는 '공간'의 갈망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술관은 꽤 괜찮은 해소책이 되기도 한다. 그저 '모이는 장소'나 '과시하는 배경'만이 아니라 작품과 마주하며 관조하는 공간으로서도 말이다. 긴 공사를 거쳐 팬데믹 기간에 드디어 공개된 홍콩의 미술관 M+를 설계한 HdM의 건축가 피에르 드 뫼롱(Pierre de Meuron)이 소망하듯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테고 말이다. '뮤지엄, 그 이상(+)'을 풀어내고 싶은 M+ 사례를 통해 문화 예술 공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본다.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곧잘 편견을 받는 현대 미술을 선보이는 미술관. 아무래도 '관(館)'이라는 단어 탓에 딱딱한 어감을 지어내기에 개인적으로는 '예술 공간'이나 '아트 스페이스'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다. 그 지어에는 아마도 공간(空間, space)이라는 단어의 매력적인 정체성이 깔려 있어서 아닐까 싶다. 공간은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뜻한다. 그것을 채우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도 된다. 채움의 역할에는 '시간'이 등장한다. 공간이라는 개념에는 '시간'이 배제되어 있기에 아무런 정체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건축 세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논리다. 반면 장소(場所, place)라는 개념에는 필히 '시간'이 개입된다. 우리는 흔히 공간과 장소를 혼용하지만, 사실 이



1 홍콩 구룡반도 서쪽의 거대한 매립지를 문화 예술촌으로 변모시킨 시주총 문화 지구(WKCD)에 자리한 M+. 센터럴 지구에 들어선 명스 타이먼 센터 내에 있는 현대미술관 JC 컨템퍼러리(2018년 개관)에 이은 HdM의 두 번째 홍콩 미술관 프로젝트다. 홍콩성을 바라보는 파사드는 작품들을 상영하는 M+ 스크린으로 활용된다. 2 고층 건물이 즐비한 홍콩의 수직적인 풍경 속 수평의 미학이 느껴질 수 있는 M+의 개구로인 T형 실루엣. 3 삼터 길은 공용 공간을 지나 열라베이트를 타고 올라가면 간-간 홍콩성 전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M+의 루프 데크와 204개의 저명한 예술가 이시무 노구치의 조각 작품. 4 우라-라 기점으로 1층에 해당하는 G층에 자리한 메인 홀(Main Hall) 풍경. 전체 공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보이드(Void)가 자리한 지점은 지하 2층으로 가면 주어진 상층에서 발견한 공간을 일컫는 파운드 스페이스의 위치가 된다. 파운드 스페이스 밑으로 공회 층도가 통과하는 타일이 놓여 있다. 5 영화관(M+ 사티아), 카페 등이 있는 지하에서 메인 홀이 자리한 G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6 M+ 상계를 이끈 HdM의 장엄자 듀오인 자크 헤어초크(Jacques Herzog, 맨 왼쪽에서 세 번째)와 피에르 드 뫼롱(Pierre de Meuron,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해 뮤지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0일 열린 미디어 데이에 함께한 모습. 이날 이 건축가 듀오는 배ijing 올림픽 주 경기장의 모형을 비롯해 HdM의 아시아 주요 프로젝트 자료를 기증했다. Photo_Winnie Yeung @ Visual Voices Courtesy of M+, Hong Kong 7 대부분의 전시실(gallery)이 위치한 M+ 2층의 아트리움. 8 M+ 사티아의 티켓 카운터. 홍콩의 일상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전통적인 미술관 여객기에서 볼 수 있다. Photo_Lok Cheng Courtesy of M+, Hong Kong 9 루프 데크에 있는 3층에 자리한 한식당 모수 홍콩(Mosu Hong Kong). Courtesy of Lai Sun Dining * 1, 4, 7 M+, Hong Kong Photo_Kevin Mak © Kevin Mak Courtesy of Herzog & de Meuron * 2, 3, 5 photo by SY Ko



편 공간을 '해정'한다면 그건 자신의 시간과 경험, 추억이 스며들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은 사람들의 시선과 호흡, 발걸음 기다리며 뜻깊은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동시대 미술관이 작품이나 전시에 따라붙는 '난해함'이라는 꼬리표를 자주 달면서도 여전히, 아니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놀랄 정도로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그저 '인스타그램'에 밝힌 건축적 배경 덕분만은 아닐 것이다. 시대를 반영하는 다채로운 유·무형의 예술 콘텐츠를 비우고 채워나가는 반복하는 카멜레온 같은 공간으로서의 매력은 분명 존재한다. 설계 돌입 시점을 기준으로 8년여의 세월을 거쳐 2021년 늦게 드디어 대중 앞에 자태를 드러낸 M+ 역시 그러한 공간에 대한 포부를 품고 'Museum and More'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을 갖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내려진 방역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린 올봄에 비로소 지구촌 여행자들이에게 공개된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 M+. '공간 창조자'를 대표하는 건축가를 만나, 이미 3백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맞이한 M+의 건축 여정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시대 가장 흥미로운 건축가들(HdM)의 새로운 도전 비록 소수지만 어떤 건축가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수백, 수천 명의 관심을 모이게 하고 많은 문화 소비자로부터 그들의 인장이 찍힌 '공간' 순례에 나서게 할 만큼의 마력을 지닌다. 매머드급(한화 1조원을 훌쩍 넘기는) 건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M+ 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스위스 건축 회사

HdM을 이끄는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듀오 자크 헤어초크(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뫼롱(Pierre de Meuron). 동갑내기(1950년생) 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우정과 커리어를 키워온 이 듀오의 이름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HdM의 건축 여정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 도쿄의 아이오아 프라다 빌딩,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 그리고 가깝게는 서울 도산대로에 자리한 케이크 조각처럼 생긴 건물로 유명한 송은(SONGEUN) 등 세계 유수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스타키택트'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카상도 일찌감치 받았다(2001년). 필자는 이 시대의 유명 건축가들이 차별된 기술을 구사해 대중을 경탄하게 하는 스펙터클과 공공적 이미지를 구현할 능력이 있는, 하지만 상업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헬러브리타나' 다름없다는 한 저자의 강도 높은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사실 '정도는 다르지만 그들 대다수도 사업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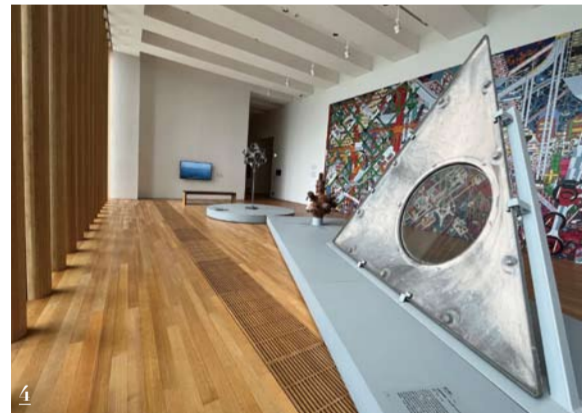


자신들의 막대한 상징 자본을 등에 업고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의뢰인의 요구와 창조성 사이에서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도시의 기억을 좌우하는 건축 생태계를 호명하는 직업이라니, 많은 이들이 선망할 만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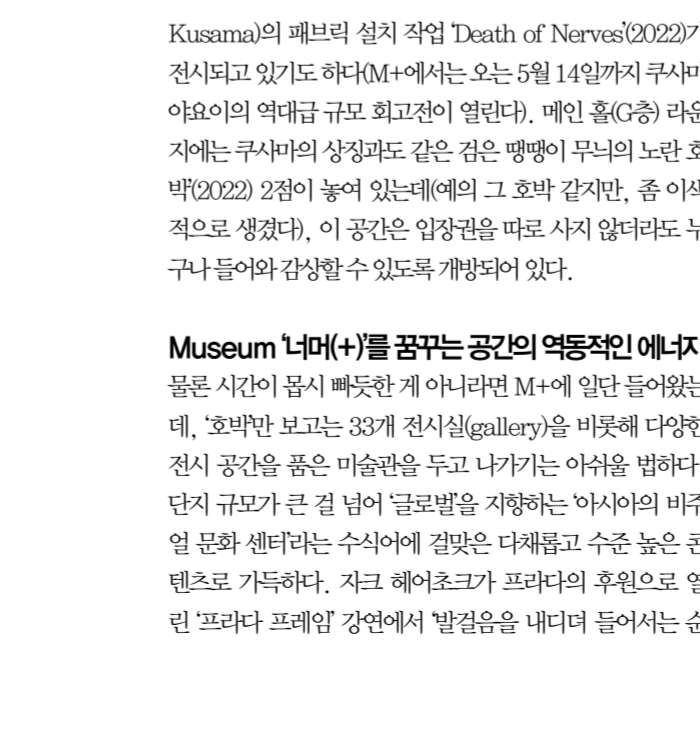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HdM은 '시그너처 스타일'을 지문처럼 남기는 대신(예컨대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스타일) 프로젝트를마다 유연하게 끊임없이 실험을 거치며 심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작업을 이어온, 개인적으로도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건축가 집단이다. 수년 전 송은에서 열린 간담회를 찾은 이 듀오에게 그처럼 지문을 남기지 않는 전형성의 탈피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건축적 제약에서 비롯된 형태미기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이들이 근래의 건축적 전범을 굳이 넘어설지 않고 건축의 핵심 의제로 여겨지는 '표피'에 집중해온 이유를 일부만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했다(M+의 경우, 동양 건축의 전통적인 지붕에서 영감받았다는 세라믹 타일 소재의 '표피'가 눈길을 끈다). 송은 때 서면 인터뷰 당시 '모든 프로젝트 진행 시 단헌 서랍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항상 열린 리듬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답했던 피에르 드 피롱인데, 홍콩에서 만나니 이번 M+ 프로젝트만큼은 처음에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전혀 다른 유형의 도전이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잘 알려졌듯 M+가 아무것도 없는 구룡반도 서쪽 매립지에 세우는 아트 센터라는 제안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디자인 씽킹의 역할, 제약에서 공간을 '발견'하다

M+의 디자인 브리프는 명료했다.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컨템퍼러리 비주얼 문화 센터(전시 공간 규모만 17,000㎡, 약 5천1백 평이다). 구룡반도의 거대한 매립지를 문화 예술촌인 시주룽 문화 지구(WKCD)로 탈바꿈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컨템퍼러리 미술관을 말한다. ("건축가의 일은) 디자인 브리프를 해석해 하나의 건축물로 빛어내는 것이지요. 브리프를 받아 든 다음에는 부지(site)를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게 텅 비어 있었죠. 매립지였으니까요." 피에르 드 피롱은 "테이트 모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 건물(발전소)이라도 있었는데..."라고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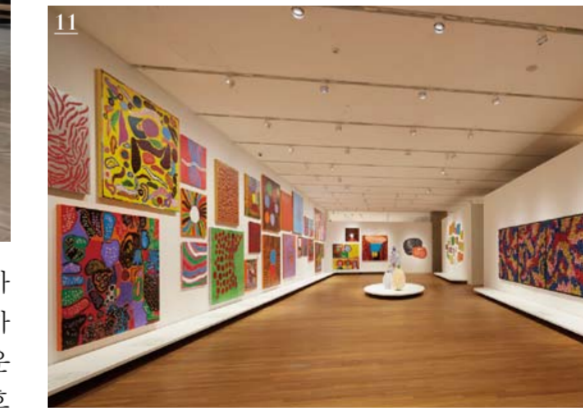


짜к 미소 지으면서 "계다가 그 밑으로는 기차가 지나가는 길 (공항 철도)인데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M+ 밑에는 공항철도 터널(Airport Express Tunnel)이 존재한다. 피에르 드 피롱은 당시 점선으로 처리되어 있던 터널이 담긴 현장 도면을 담은 그림까지 직접 그려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아이디어의 단초(sparkle)로 작용했어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어진' 터널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고 이를 공간의 근간으로 삼는 방식이다. 발전실을 임의로 비워 전시 장소로 개조한 그 유명한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을 다른 방식과 닮은, HdM다운 해법이다. "뭔가 주어진다 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M+ 경우에도 공간을 규정하는 (space-defining) 것(효과)이었죠." 이는 HdM이 언젠가부터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파운드 스페이스(found space), 발견된 공간의 창출로 이어졌다. 실제로 M+ 건물 안에 들어가면 대각선 방향으로 터널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하 2층의 빈 공간(void) 주변에 파운드 스페이스라고 적힌 걸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공간에는 일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Yayo



간 다양성(diversity)'이 느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회화, 조각, 영상 미술 등 현대미술만 다루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건축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영화관, 러닝 허브(교육) 등의 공간도 꾸린다.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성도 눈에 띈다. 예컨대 현재는 쿠사마 전시 말고도 중국 현대미술사의 주요 자취를 아우를 정도로 '백과사전식'으로 소장품의 대다수(1천5백10점)를 M+에 기증해(일부는 매입) 화제가 된 스위스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 현재 송은에서도 그의 소장품 전시가 진행 중) 전시를 비롯해 홍콩의 현대사를 파노라마처럼 훑어 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M+는 다양한 기능을 겸

1 홍콩의 근현대미술 사립으로 출발할 수 있는 메인 홀 갤러리 전시, 아시아 현대미술에 깊이를 더해주는 M+의 장점을 보여준다. 2 Installation view of Hong Kong: Here and Beyond in Main Hall Gallery Photo: Iwan Baan © Herzog & de Meuron Courtesy of Herzog & de Meuron 3, 4 디자인, 건축을 아우르는 전시 (Things, Spaces, Interactions) 풍경. M+ 이스트 갤러리(East Galleries). 5, 6 중국 현대미술사의 주요 자취를 아우를 정도로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소장품(한정액 장려금)의 대부분을 M+에 기증해 화제가 된 스위스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 전시 풍경(현재 송은에서도 그의 소장품 전시가 진행 중)이다. 6번 사진에 보이는 바닥의 설치 작업은 반체제 작가 루이 웨일(Loïc Weil)의 작품 White Wash(1995~2000). 정치, 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위기감이 관철되는 홍콩을 대표하는 M+의 전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7 M+ 포커스 갤러리(Focus Gallery)에 설치된 비틀(Beeples)의 작품 HUMAN ONE를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8 현재 M+에서는 일본의 세계적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를 조명하는 회고전 (Yayoi Kusama: 1945 to Now)가 진행 중이다(오는 5월 14일까지). 일본 외국의 전시로는 최대 규모다. 사진은 지하 2층 터널(2)에서 감상할 수 있는 체현형 작업 'Death of a Nerve'(1976). 10 M+ 메인 홀(G)을 리모델링하는 쿠사마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 뿔뿔무늬의 노란 호박이 토포는 'Pumpkin' (2022)이 놓여 있다. 11 Installation view of Yayoi Kusama: 1945 to Now, 2022(West Galleries). 12 Installation view of 'Clouds'(2019) at Yayoi Kusama: 1945 to Now, 2022. 13 Installation view of 'Infinity-nets'(OOAETT)(2007) at Yayoi Kusama: 1945 to Now, 2022. ※ 1, 3~8, 10 photo by SY Ko ※ 9, 11~13 photo by Lok Cheng, M+, Hong Kong



한다는 점에서는 파리의 퐁피두를 연상케도 하지만, 피에르 드 피롱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감안할 때 런던의 테이트 모던, 함부르크의 엘프필라모니 같은 문화 예술 공간과 비교할 만하다고 말했다. "셋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강이나 바다 같은 '물'을 끼고 있죠. 그리고 도시의 맥이 잘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는 '침술 요법처럼 도시의 혈을 뚫어주는' 역할에 대한 비유도 곁들이며 부디 M+가 다양성을 품은 채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트 센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그는 다행히 시작선상에서는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면 '존재감을 발산하기 위해 반드시 제일 높은 건물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실제로 M+는 홍콩 기준에서는 높지 않은 18층짜리 건물이고, 전시 공간은 대략 3개 층에 나뉘어 있다). 구룡반도 건너편 홍콩섬에서 잘 보이는 M+ 건물의 한 면을 큰 스크린으로 감싼 'M+ 파사드'도 그런 존재감의 원천이 되어주는 요소로 꼽았다(M+ 파사드에서는 예술 작품을 주기적으로 상영된다). M+는 건축물 자체도 수직적인 압도감이 부재하기에 사실 가까이에서는 큰 오라가 느껴지지 않는다. 건물들이 온통 하늘로 치솟은 수직의 도시(vertical city)에서 좀처럼 접하긴 힘든 '수평의 미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HdM의 말처럼 수직과 수평이 누운 'T'자형으로 교차하는 건물의 실루엣조차 야외로 나가 각도를 넓게 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연광이 군데군데 효과적으로 빛을 발하고 작품에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는 동선과 구조 등 내부 공간의 미학이 미술관이라는 플랫폼에 잘 맞는 옷 같다(디자인만 아니라 사고와 시각에서도 '수평'을 추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M+를 방문한다면 인어만 머물지 말고 옥외의 '루프 가든' 산책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홍콩섬이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을 벗 삼아 바람을 쐬는 경험은 물론 피에르 드 피롱이 말한 좋은 에너지를 느끼며 '공간의 기억'을 쌓을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고교생연**

Kusama)의 페브릭 설치 작업 'Death of Nerves'(2022)가 전시되고 있기도 하다(M+에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쿠사마 야요이의 역대급 규모 회고전이 열린다). 메인 홀(G층) 라운지에는 쿠사마의 상징과도 같은 검은 뿔뿔이 무늬의 노란 호박(2022) 2점이 놓여 있는데(예외의 그 호박 같지만, 좀 이색적으로 생겼다), 이 공간은 입장권을 따로 사지 않더라도 누구나 들어와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Museum '너머(+)'를 꿈꾸는 공간의 역동적인 에너지 물론 시간이 몹시 빠듯한 게 아니라면 M+에 일단 들어왔는데, '호박만 보고는 33개 전시실(gallery)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 공간을 품은 미술관을 두고 나가는 아쉬움을 범하다. 단지 규모가 큰 걸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아시아의 비주얼 문화 센터'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다채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가 가득하다. 자크 헤어초크가 프라다의 후원으로 열린 '프라다 프레임' 강연에서 '발걸음을 내디디 들어서는 순

(위부터 차례대로) 섬세한 진주 디테일과 골드 컬러의 조합이 화려한 맛을 전하며, 별 모양의 디테일로 귀여운 느낌을 더한 크리스탈 인트로킹 G 및 펠 디테일의 골드 피니시 메탈 비 세이프 브레이슬릿 81만원 **구피**, 문의 02-3452-1521. 메탈 소재의 모던한 트롬핑 이어링으로 진주 위에 레이저 커팅으로 로고를 각인해 우아함을 더한 메탈 및 펠 귀걸이 74만원 **마우미우**, 문의 02-3218-5331.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RV 로고 장식이 돋보이며, 오픈 링 형태로 착용의 편의성을 더하고 손목에 인척했을 때 접제된 품격을 드러내는 펠 컷 브레이슬릿 63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더블 진주 스트랩 형태로 화이트 펠 중간중간 컬러 펠을 매칭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자랑한다. 메탈, 글라스, 스트라스, 그리고 펠 소재가 화려한 조화를 이루는 네크리스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805-9628. 펠 장식에 골드 컬러의 브랜드 로고를 더해 도시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DG 로고 & 펠 장식 이어링 59만원 **올채어비너**, 문의 02-3442-6888. 골드 피니시 메탈 소재로 정교하게 새 모양으로 재작한 링으로 화이트 담수 진주로 디테일을 완성한 디올 세바바 스타 링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윤지경**

White Treasure

신비로운 바닷속 전설처럼 오묘하고도 영롱한 매력을 발산하는 모던 진주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진영 사진



Rubber Lover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감성을 전하는 것은 물론, 실용적이고 편리한 러버 스트랩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파타미 샌드백** 수중 모험의 역사와 유사 깊은 브랜드의 특허 크리온 보호 장치를 반영한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 독특한 라버 이코닉인 스트랩까지,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랍 어워 및 노트를 매치하고 3시 방향에 날짜창,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를 두었다. 오토매틱 기계식 P.900 칼라버로 작동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1670-1936

제스 데피 스키아터인 스즈베트 아이코닉한 자른 41mm 팔각형 스틸 케이스와 각면 처리된 베젤 디자인이 돋보이며,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사자 별 장식을 재해석한 블랙 컬러의 오픈 다이얼이 특징이다. 기본 스틸 브레이슬릿을 장착했지만 패턴으로 장식한 블랙 라버 스트랩을 함께 제공해 교체 가능하다. 1천7백만원, 문의 02-3479-6191

오메가 씨스타이어 아워타이머 150M 코-엑스텔 마스터 크로노미터 GMT 월드타이머 43MM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태양광 패턴에 새로 향유된 티크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블루 타يفون 시스를 시로잡는다. 무엇보다 다이얼 중앙에 24시간 글라스 링을 장착한 모습이 신비로운데, 자외선의 모음은 그레이드 5 타يفون 폴리테르로 제작했다. 블루 라버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8936로 작동한다. 1천7백만원, 문의 02-6905-3301

브레게 마린 5517 기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마린 컬렉션에서 스포티한 세련미를 구현하는 동시에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 자른 40mm 타يفون 케이스에 블루 타يفون 다이얼을 매치하고 3번에 다리 짜증을 더해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블루 라버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매개-컬 섀프 와인딩 무브먼트 777A를 장착했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3479-1008

쇼피드 알파인 이글 44mm 특수리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쇼피드 루신트 스틸™ 케이스에 갈라져 처리된 애플루트 블랙 컬러 다이얼과 스틸 버들을 다룬 무량 블랙 라버 스트랩을 매치해 목보존적인 남성미를 부여한다. 날짜, 스몰 세컨즈, 아워, 마인, 12시간 카운터와 30분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세팅스 핸드까지, 다양한 기능을 담았다. 3천1백66만원, 문의 02-6905-3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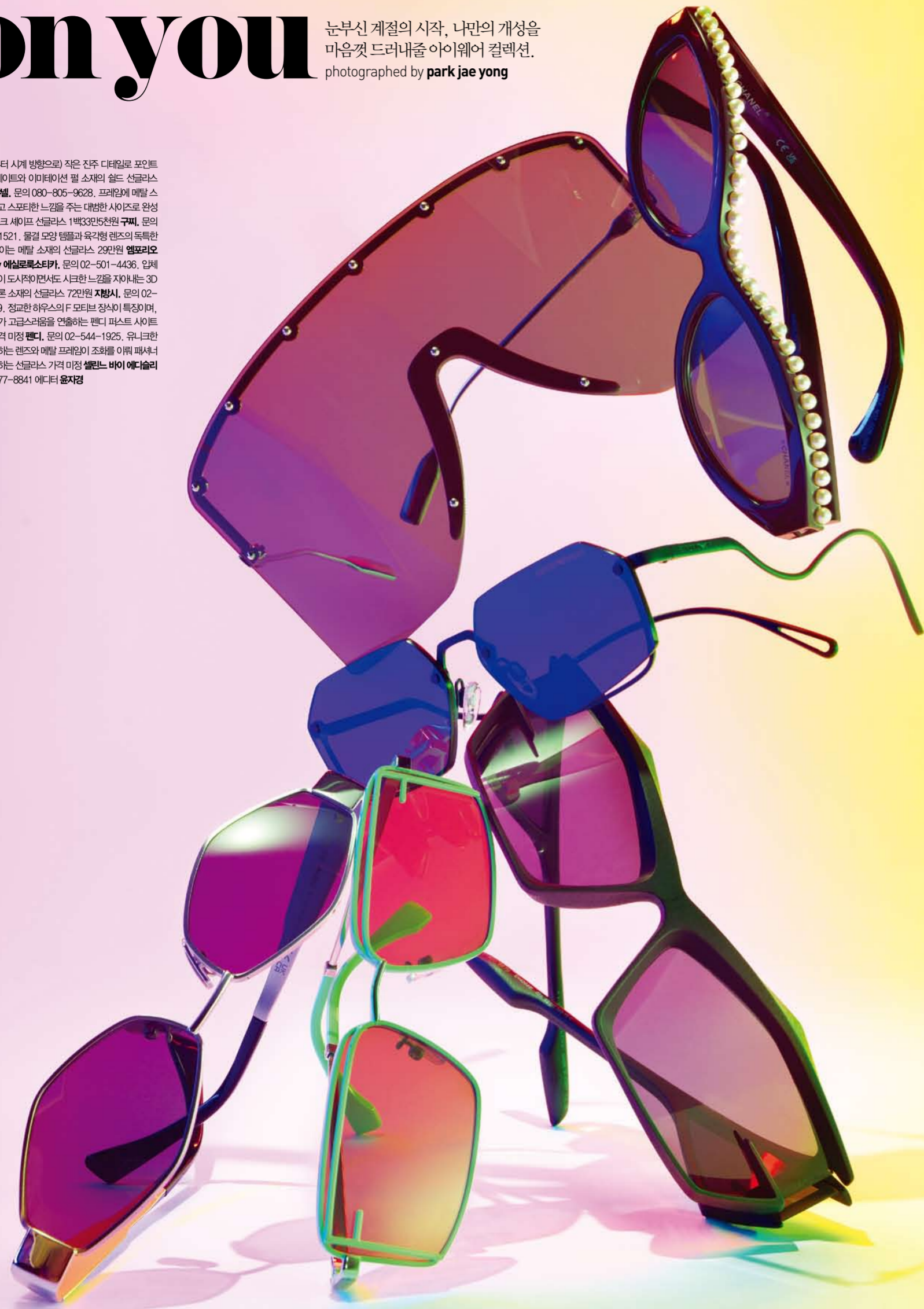
블가리 블가리 알루미늄 자른 40mm의 알루미늄 소재 케이스 뒷면은 티타늄으로 완성했으며, 블가리 더블 로고를 음각한 블랙 라버 베젤과 브레이슬릿으로 통일성을 주었다. 여기에 그레이드 다이얼을 매치해 가독성을 높였고, 그 안에 크로노그래프를 더해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다이얼에는 DJO 자 무지 프로듀서인 스티브 아오카와의 협업을 통해 그만의 특별한 로고를 새겨 거북을 더욱 높였다. 9백20만원, 문의 02-2056-0170

IWC 피렐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놀랄 만큼 가볍고 견고한 5등급 티타늄 소재로 제작된 케이스에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워치 시·분·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으며, 데이 및 네이트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이지 체인지 스트랩 픽 체인지 시스템으로 교체 가능한 그린 라버 스트랩과 같은 컬러의 아워 마워인 핸즈가 개성을 부여한다. 1천100원, 문의 1877-4315 에디터 **성민**

Shadows on you

눈부신 계절의 시작,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줄 아이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작은 진주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아시메트릭과 이미테이션 펄 소재의 실드 선글라스 가격 미정 **사헬**, 문의 080-806-9628. 프레임에 메탈 스타드를 다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대방한 사이즈로 완성한 블랙 마스크 세이프 선글라스 1백39천5천원 **구피**, 문의 02-3452-1521. 물결 모양 렌즈와 육각형 렌즈의 독특한 조화가 돋보이는 메탈 소재의 선글라스 299천원 **엘포리오** **아르마니 by 에실로텍스타카**, 문의 02-501-4436. 입체적인 프레임이 도사락이면서도 시트한 느낌을 자아내는 3D 프린팅 나일론 소재의 선글라스 72천원 **자황시**, 문의 02-3479-0729. 정교한 하우스의 F 모티브 장식이 특징이며, 렌즈 세이프가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렌즈 파스트 사이트 선글라스 가격 미정 **렌디**, 문의 02-544-1925. 유니크한 메탈을 자랑하는 렌즈와 메탈 프레임이 조화를 이룬 패셔너블함을 보여주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세인트스 바이 에디슬리** **먼**, 문의 1577-8841 **에디터 윤자경**



infinite crea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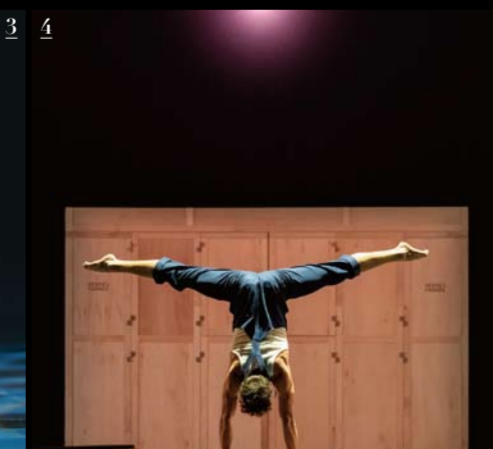
1
에르메스의 홈 컬렉션은 독창성과 가치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퍼포먼스까지 모든 것이 남달랐다. 경이와 환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축제의 현장.

2
지난 4월 3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던 에르메스 홈 컬렉션이 아름다운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되었다. 이름하여 '아름다운 축제(Hermès Parade)',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행사로 에르메스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구들을 진열하고 보여주며 체험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틱한 퍼포머들을 동원해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에르메스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 독특하고 유쾌한 현장에 다녀왔다.

Excellent Immersion
에르메스 홈 컬렉션 '아름다운 축제(Hermès Parade)'는 행사 전체가 하나의 연극이자 퍼포먼스로 꾸러졌다. 관객들이 입장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박스의 등장을 목격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저마다 다르게 장식된 다양한 박스들 속에는 아름다운 홈 컬렉션을 담고 있으며, 관객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침과 동시에 기대에 부풀게 된다. 서서히 56명의 댄서와 애크러베티 퍼포머, 테크니션 등 재능 있는 퍼포머들

이 등장하고 박스를 여는 순간 행사의 주인공인 에르메스의 가구, 조명, 오브제, 텍스타일, 테이블웨어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홈 컬렉션에 대한 단순한 진시나 설명 대신 퍼포머들은 여기저기에서 홈 오브제와 어울러지는 70여 가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4백여 개의 오브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공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광경을 선사한다. 박스와 에르메스의 홈 컬렉션 제품들은 무대, 공연 세트, 패션쇼 런웨이 등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며 관객들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이 퍼포먼스들에 동화되기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관객들이 모두 함께 즐거운 폰니 댄스(pony dance)를 추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관객들이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동화되는 순간이다. 폰니 댄스는 승마에 뿌리를 둔 에르메스의 기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행복과 황홀감 가득한 또 하나의 유쾌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관객들 또한 에르메스 홈 컬렉션뿐 아니라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 놀라운 현장은 에르메스가 기획하고 세계적 아트 디렉터인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e)가 연출했으며, '형태(form)', '소재(material)', 그리고 '기능(function)'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에르메스 홈 컬렉션의 독창적 가치를 잘 표현했다. 더불어 에르메스 홈 컬렉션의 아티스틱 디렉터, 샬롯 마커스 펠만(Charlotte Macaux Perelman)과 알렉시스 파브리(Alexis Fabry)가 기획한 가구, 조명, 텍스타일, 테이블웨어 등의 아름다움을 가장 창의적으로 전달한 행사였다. 특별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펼쳐 보인 이 아름다운 축제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상영민**



1 에르메스 '아름다운 축제(Hermès Parade)'가 펼쳐진 공간. ©Shin Kyungsob
2 퍼포머의 주요 무대가 될 박스가 열리며 등장한 장면. ©Shin Kyungsob
3 퍼포머들이 들고 들어온 에르메스 오브제가 든 박스. ©BAKI, KwangChan Song, Doki Hong
4 에르메스 퍼레이드 행사장의 박스 스타이에서 퍼피(Pippi) 스톱과 함께 공연하는 모습. ©Jail Son

(왼쪽부터 차례대로) 총 0.037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O 형태의 펜던트 중앙에 정교하게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칼링 브레이슬릿, 약자에 착용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스톤 링, 총 0.377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미니 링, 감자에 착용한 간결하고 절제된 맛을 전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Crush on You

승고한 욕망과 대범한 도발,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의외성에서 발견한 미학을 담은 샤넬의 코코 크러쉬 2023 컬렉션. 곡선을 가로지르는 깔끔하고 균일한 커팅이 눈에 띄는 피스들은 함께 레이어링했을 때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모텔 윤성영 이사진은 신영희

(위부터 차례대로) C 형태의 펜던트가 하우스만의 클래식한 무드를 표현하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칼링 모티브 브레이슬릿, 총 0.377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미니 링, 2개의 칼링 모티브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18K 옐로 골드 소재의 C 로고 펜던트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총 0.377캐럿의 18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미니 링,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스톤 링, C 형태 펜던트가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을 선사하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칼링 브레이슬릿, 감자에 착용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링,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전하는 총 0.18캐럿의 3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스톤 링, 미디에 착용한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18K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18K 베이지 골드 브레이슬릿은 각각 다른 디자인을 조합해 가느다란 샤넬의 별명인 'COCO'를 일파적으로 연출해 착용할 수 있다. 심플한 무드의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스톤 링,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미니 링, 시크한 매력을 전하는 칼링 모티브의 18K 옐로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스톤 링 모두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체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칼링 모티브 펜던트가 포인트인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O 모양 로고 펜던트 안에 0.037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와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칼링 브레이슬릿, 총 0.18캐럿의 31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고 정밀하게 세팅해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스톤 링 모두 가격 미정 **사설 확인 주얼리.** 문의 080-806-9628, chanel.com 에터 **윤지경**

POMELLATO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 소재에 간결하지만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인 이코나카 브레이슬릿, 총 1.1캐럿의 38개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한 18K 로즈 골드와 로듐 플래티늄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코나카 링, 총 3.8캐럿의 2백67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배가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나카 브레이슬릿, 총 2.5캐럿의 20개 핑크 투르말린, 옐로우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차보라이트, 그리고 레드 스피넬 등 다채로운 원석을 세팅해 화려함이 돋보이는 이코나카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6905-3342



GIFT
IDEAS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5월이 성큼 다가왔다.
주얼리, 워치, 패션, 뷰티 등 취향별로 주고받는 이의 마음을 충족시킬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oi min young, kim sa yun, oh hyun sang

에디터 생원민, 윤지영
이시노스케 신영민



(위부터 차례대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12.9캐럿의 스키이 블루 투파즈 펜던트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총 0.1캐럿의 1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누도 펜던트 네크리스, 총 1.8캐럿의 1백5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소재의 누도 링, 11.3캐럿의 화이트 투파즈와 마다모브릴 펜던트가 우아한 무드를 선사하며 0.1캐럿의 10개 다이아몬드를 기미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누도 펜던트 네크리스, 심플하고 도시적인 느낌의 10캐럿 연건 블루 투파즈와 터키아즈가 존재감을 자랑하고 밴드에는 총 0.7캐럿의 58개 다이아몬드를 총총하게 세팅한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6905-3342



(위부터 차례대로) 2개의 빛나는 화관으로 연인들의 사랑의 속삭임을 표현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소크리테스 비트윈더 핑거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총 1캐럿의 9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밴드가 양쪽 끝에서 회전하는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파아제** 1668-1874, 0.67캐럿의 파이어형 아파르틴 2개가 화려함을 선사하고 아이코닉한 V 형태의 이그레프를 연상시키는 비대칭 디자인 시선을 사로잡는 조세핀 이그레프 이어링 1천만원대 **소메** 02-3442-3359, 총 2.85캐럿의 20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총 0.35캐럿의 7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무빙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해피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4천6백39만원 **스파드** 02-6905-3390,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티브에 페어 셰이프 사파이어 1개가 중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사파이어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다하고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디바스 드림 오픈워크 네크리스 4천1백80만원 **볼거리** 02-2056-0170,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손을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미묘사 플렉시 링 가격 미정 **다이아니** 02-3213-2141.



(위부터 차례대로) 총 3.18캐럿의 페어 셰이프 탄자나이트가 눈길을 끌며, 주변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슌 영보에이스 아트렉션 밴드 링 가격 미정 **스타본 헬스티** 02-2231-1592, 총 7.64캐럿 옥타곤 컷 에메랄드가 칼라감을 자랑하며, 1.02캐럿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칼라 오브 링 가격 미정 **피베르체** 02-3442-4706, 총 3.02캐럿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가 독보적인 반짝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링 가격 미정 **그라프** 02-2256-6810, 총 3캐럿의 큰케이트 컷 자수정이 영롱한 색감을 선사하는 18K 시쿠라 골드 소재의 루미노 자수정 링 가격 미정 **타사키** 02-3461-5558.



(위부터 차례대로)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쟈 디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총 0.2캐럿의 2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손목 위에 우아함을 선사하는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서비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코펠리토** 02-6905-3342, 골드 비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베블리 컬렉션으로 클로버 모티브를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베블리 스위트 클로버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총 0.28캐럿의 80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핑크·화이트·옐로 골드와 브라운 PVD의 조화가 돋보이는 콰트로 클래식 스톤 후프 이어링 9백만원대 **부세론** 02-3213-2246.

OMEGA

(왼쪽부터 차례대로)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를 사용해 METAS로부터 1만5천 가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워치,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압도적 존재감을 자랑하며, 기묘 형태의 티크 패턴을 입힌 블루 그레이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17로 구동하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41MM 5천1백만원대,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베이직 티크 패턴 다이얼과 러버 밴드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의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41MM 2천9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위부터 차례대로) 오메가의 오랜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인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38mm 모델로 전체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라스 소재로 제작한 사프론 칼라의 다이얼을 매치했다. 8백만원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34mm 버전으로 라벤더 다이얼 컬러와 작은 사이츠에도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을 탑재해 같은 성능과 기능을 발휘한다. 8백만원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의 리군 그린 컬러 다이얼 버전 8백만원대, 샌드 스톤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38mm 모델로 아메리카 질 어울리면서도 클래식한 감성을 부여한다. 8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왼쪽부터 차례대로) 알테 크로스를 연상시키는 6면 베젤에 7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여성스러움과 섬세함을 표현했으며, 대담 블루 색상 다이얼과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워치 오버사이즈 33mm 2천2백만원대 **비버리온 콘스탄틴** 1877-4306,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지름 31mm 케이스와 총 0.14캐럿 리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티파니 블루 아주레 다이얼이 아우라져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더하는 워치 무브먼트 2-핸드 31mm 워치 가격 미정 **티파니 02**-6250-8620,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알파벳 H 모양의 가로세로 21mm 케이스에 총 0.072캐럿의 다이아몬드 52개를 세팅하고 아이즈-나이트 다이얼과 비슷한 컬러의 아이즈나 송이자주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하이워 미니 2천2백만원대 **에르메스 02**-542-8622, 블랙핑크 리사와 콜라보레이션해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더블 로고 인그레이빙을 더한 18K 로즈 골드 베젤을 매치하고 컬러가 변하는 산웨이 마감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화려한 무드를 추가한 개성 넘치는 디테일의 불가리 리사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7백35만원 **불가리 02**-2056-0170.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베이지 골드 케이스에 오パール 기요세 다이얼과 브랜드 상징인 트윈드를 연상시키는 블루 펄링 패턴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는 보이프렌드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080-805-9628, 지름 29mm 스틸 케이스에 베젤에는 약 0.377캐럿의 65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총 0.077캐럿의 11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아워 마크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블루 옐라게이트 스트랩으로 유쾌하고 여성스러운 감성을 더한 포제션 워치 1천만원대 **피아제** 1668-1874, 지름 29.2mm의 스틸 케이스에 깔끔한 화이트 다이얼을 매치하고, 베젤은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우아하게 완성했으며, 라이트 블루 옐라게이트 스트랩을 더한 세컨드 핸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발레레 울트라 플레이트 1천8백만원대 **블랑팡** 02-3467-8426, 유쾌한 감성의 여성스러운 베블리 컬렉션의 워치로 섬세한 골드 비즈로 베젤을 장식해 마치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지름 23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기요세 다이얼을 매치해 산비너스 느낌까지 더한 스위스 워치 무브먼트의 베블리 워치 1천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위부터 차례대로) 독자적인 소재인 쇼파드 루센트 스틸™로 제작한 타이피스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갈바니 차리한 블루 컬러 다이얼과 독수리의 눈에서 영감을 받은 로동 도금 로마숫자 및 슈파루미노브 코팅 아워 마커를 매치했으며, 쇼파드 01.01-C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2천3백37만원 **쇼파드 02**-6905-3380, 지름 40mm 사이즈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태양광 패턴 마감 차리한 동형 로동 그레이 다이얼이 오묘한 느낌을 주는 워치, 다크 그레이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고 우아하며 세련된 감성을 전하는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0MM 8백만원대 **오메가 02**-6905-3301, 브랜드의 시그처 디자인인 스페어 형태의 지름 45mm 파타나 AIS 316L 스틸 케이스에 카프 스킨 소재의 브라운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준다, 파넬라이 인하우스 제작 P.6000 칼라버를 탑재한 핸드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기동성 높은 빅 사이즈 아라비아숫자 아워 마크가 포인트인 라디오미르 오리지널 9백만원대 **파넬라이** 1670-1936, 브랜드의 아이코닉 모델로 콤팩트한 지름 41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베젤을 슬림하게 제작해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틀라게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날렵한 나뭇잎 모양의 핸드로 간결하고 실용적인 다이얼 구성을 갖췄다, MC 자체 제작 69355 칼라버로 구동하는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1천 백30만원 **IWC 02**-3440-5876, 선구자적인 다이버 워치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모델로 지름 45mm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블랙 다이얼과 단방향 베젤이 강력한 카리브마를 선사하는 피피티 패럴트 데이트 & 세컨드 5015-1130-71S 2천2백만원대 **블랑팡** 02-3467-8426, 다이얼 양면을 튜닝해서 사용 가능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타이피스트인 리베르스 트리뷰트 듀오에스 컬렉션, 18K 핑크 골드로 만든 세로 49.4mm, 가로 29.9mm의 직사각형 케이스에 브라운 송이자주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고 빈티지스러운 무드를 자랑한다, 다이얼 양면은 산웨이 패턴 살바에시, 분, 요일, 날짜, 월, 문맥이즈를 매치했고, 핫엔은 산웨이 패턴 그레이 칼라에 세컨드 타임존과 낫·밤을 표시해 색다른 모습과 재미를 선사한다, 3천2백만원대 **에거 르클레르** 1670-1833, 브랜드의 시그처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클래식한 감성을 전달하는 탱크 프랑세스 워치 라지 모델로 산비노 마감한 다이얼에 검 모양 블루 스틸 핸드와 로마숫자 인덱스가 아이코닉하다,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즘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카띠에** 1877-4326.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우아 크로세와 브리사 파우아 소재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핫 80만원대 **에르메스** 02-542-6622, 세련된 이모트 세이프에 톤온톤 렌즈로 트렌디한 감성을 부여하는 선글라스 30만원대 **토즈** 02-3438-6008, 라이트 블루 스퀘어 컷 크리스탈에 심어진 로듐 플래티넘 세팅과 숨겨진 잠금장치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알레나아 네크리스 70만원 **스외로브스키** 1522-9065, 싹트듯한 라임색 컬러의 페이퍼트 가죽 소재 메리제인 스타일 시로시 힐 94만원 **세르자오 로시** 02-3446-6038, 블랙 스타일로 쿨하고 시크한 연출이 가능한 레몬 컬러 유광 카브 스킨 소재에 골드 메탈을 매치한 사벨 22 백백 가격 미정 **사벨** 080-805-9628,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백인 알렉사 백의 미니어저 사이즈로 베이츠 워터와 엘롱된 브리프케이스 스타일을 조합해 완성한 해비 그래픽 소재 마이크로 알렉사 83만원 **엘바리** 02-2018-1439,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로 매치하기 좋은 나파 가죽 소재 4 스타치 장갑 87만원대 **매종 마르자텔라** 02-772-3234.

Alexander McQUEEN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네클이 돋보이는 주얼 호보 미니 백의 새로운 컬러, 실버, 네클에 장식한 카본 패시 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주얼 호보 보디 실루엣이 인상적이다. 몇 개의 재단을 조합해 새로운 호보 형태를 만들었으며, 특유의 날렵하고 유려한 라인을 자랑한다. 3백29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위) 스웨이드와 네오프렌 소재를 믹스한 컬러 블록으로 심플하면서도 캐주얼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V 로고 패이스 스니커즈 1백23만원 **발렌티노 가바리니** 02-2015-4655. (아래) 대담한 특과 굽한 스타일에 레트로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가벼운 아웃sole에 메모리폼 인sole을 갖춰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H601 스니커즈 74만5천원 **호간** 02-3479-1583.



(위) 일본 이태스트 쿠사타 아요이와 캄판파레이산한 캄팩션의 제공으로 화이트 송아지가죽에 그라인드 시그니처인 도트를 블랙으로 장식한 개성 있는 스타일의 LV x YK 트래이너 스니커즈 1백76만원 **루이 비통** 02-3432-1854. (아래) 화이트 메탈 프라 가죽 소재로 피스 및 패치 장식이 어퍼 실루엣이 특징이며, 유연하고 가벼운 러너 밑창과 라지 사이즈 플랫폼 레이스, 패딩 처리한 힐 카운터와 텡 등 디테일이 살아 있는 스포린트 러너 90만원대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위) 화이트 카브 스카에 블루 톤의 스웨이드 소재로 블록 디테일을 부여해 색다른 맛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니커즈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79-1804. (아래) 조민 스타일의 인터로킹 G 디테일을 음구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화이트 레더 스니커즈 1백24만원 **구찌** 02-3452-1521.



브랜드 시그니처 드라이브 슈즈로 컬러 버블로 이루어진 밑창이 포인트를 주는 스웨이드 소재 버블그미노 로퍼 70만원대 **토즈** 02-3438-6008.



GOLDEN GOOS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골든구스의 아이콘인 스니커즈 중 하나로 특유의 반듯한 칼라와 텍스처 조합이 돋보이며, 상부에 상판없이 매치할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유의 디스트레스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랙 브이스타 스니커즈, 화이트 캔버스 소재에 블랙 스웨이드 스타 로고로 장식한 브이스타 스니커즈, 스웨이드 소재의 다크 레드 컬러로 눈에 코인트가 도자줄 브이스타 스니커즈 모두 71만8천원 **골든구스**, 문의 02-519-2938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달을 담은 유연한 세이프가 특징인 백으로 고급스러운 스카족 소재에 스타드 장식이 포인트를 주며, 슬더와 크로스 보드로도 착용 가능해 실용적인 오스칸 문 백 1백39만원 **이자벨 다랑 에뛰알** 02-516-3737, 모던한 스커어 세이프에 짐금장치의 로고가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하는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의 데.플 핸드백 2백만원대 **윌트 로빈 칼렉션** 02-3467-6660, 매끄러운 송이자기족 소재에 톤온톤 스타드 트라임으로 디자인에 변주를 준 아이코닉한 락스타드 23 솔더백 3백57만원 **빌런드노** **가리버니** 02-2015-4655, 캐시미어를 보편하는 꾸라미에서 영감을 받은 큐브 디자인으로 여유롭고 수아한 실루엣이 특징인 송이자기족 소재의 핸드캐이드 마이크로 베일 백 3백90만원 **로로피아나** 02-6200-7799, 바스켓 같은 정직한 스커어 세이프로 모던한 느낌을 주며, 카프 스카를 인트라치카토 워빙 디테일로 완성해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한 미니 마스코 토트백 3백만원대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르코 드 빈첸초가 처음으로 선보인 백으로 배의 돛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은 V자 모양의 롤러자와 유연한 지퍼, 체인, 펜던트가 특징이다. 빛바랜 듯 요란 매려의 무스름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카프 스킨 소재의 벨라백 3백90만원 **에트로** 02-3446-1969.



FOUR LOUNG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양한 파스텔컬러와 사이즈의 담수 진수로 변주를 주어 멋스러운 밑지 59만원 **해튼 렉스 by 폴라온지**, 콤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며 베이지 컬러와 모노그램 패턴으로 우아하고 치분한 감성을 전하는 카드 홀더 39만원 **모로 by 폴라온지**, 꽃과 나뭇잎을 프린트해 컬러풀하게 완성한 스카프 17만원 **토기 by 폴라온지**, 고급스러운 퍼플 컬러의 가죽 소재에 모노그램 패턴을 더해 촉에 포인트를 주는 미니 사이즈 토트백 2백59만원 **모로 by 폴라온지**,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의 담수 진수를 활용해 개성 있는 연줄을 도와줄 네크리스 89만원 **해튼 렉스 by 폴라온지** 02-3438-6142.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탄탄한 가죽 트림으로 개성 있는 패턴 디자인과 훌륭한 내구성을 갖춘 스마트 캐주얼 벨트 17만원 **앤더스 by 폴라온지** 02-3438-6142, 청량한 코발트 블루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는 시그니처 시드 뱃지 피케 벨로 셔츠 19만원 **올덴스 by 폴라온지** 02-3438-6287, 엘리제이터 가죽 느낌의 표지로 간단한 메모도 특별하게 담아줄 고급스러운 노트 18만원 **스미아슨 by 폴라온지**, 비비드한 컬러감이 일품이며 메를 앤들르 컨셉까지 갖춘 우산 27만원 **폭스 언브렐라 by 폴라온지** 02-3438-6142.



(위부터 차례로) 가벼운 스트로피에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모자 39만원 **카사타 by 폴라온지**,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가죽 소재로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연벨로프 디자인의 노트북 케이스 89만원 **스미아슨 by 폴라온지**, 가죽 트림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과 내구성을 겸비한 스마트 캐주얼 벨트 17만원 **앤더스 by 폴라온지**, 넉넉한 카드 수납력을 자랑하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카드 홀더 39만원, 비비드한 옐로 톤에 은은한 패턴이 돋보이는 실용성 높은 밑지갑 59만원 **모로 by 폴라온지** 02-3438-6142.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벼운 스트로피에 시원한 블루 컬러로 여름에 햇살을 가려줄 모자 39만원 **카사타 by 폴라온지**, 고급스러운 가죽과 오렌지 컬러 내피로 은은한 맛을 자랑하며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로퍼 1백18만원 **산토니 by 폴라온지**, 송이자기족 소재의 카바와 컬러감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노트 39만원, 부드러운 송이자기족으로 여닫기 편하며 스카이 블루 컬러가 포인트를 더해주는 필통 43만원 **모두 스미아슨 by 폴라온지**, 비비드한 컬러감에 헤리티지 모노그램을 적용해 유쾌한 감성을 부여하는 브리프케이스 1백72만원 **모로 by 폴라온지** 02-3438-6142.



CHANEL

(위부터 차례대로) 수블리마지 라 크렘 수프릴 샤텔의 독자적인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친 고농축 비닐라 플라-몰리아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활력을 충전하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영양감을 부여한다. 50g 58만9천원. 수블리마지 라 크렘 피인 어벤이나 따뜻한 계절에 사용하기 적합한 가볍고 신뜻한 텍스처가 특징. 또 개인 피부 고민, 취향에 따라 다른 텍스처로 만날 수 있는 수블리마지 라 크렘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로 가꿔준다. 50g 58만9천원. 수블리마지 라 크렘 수프릴 리필 환경까지 생각한 리필 가능한 패키징. 무게가 가벼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50g 49만9천원. 모두 샤넬,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수블리마지 라 크렘 아이 플라-몰리아 에페이크를 함유해 눈가 미세 순환을 촉진하고 부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효과를 선사하고, 눈가 피부를 더욱 또렷하게 빛나도록 도와준다. 15g 26만원. 수블리마지 라 브릴 유대 기능인 안티에이징 미스트로 비닐라 플라-몰리아 유효를 함유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고, 8인분 분산 분말체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18ml X 4.32만5천원. 수블리마지 라 로썬 수프릴 비닐라 플라-몰리아 추출물과 비닐라 플라-몰리아 유효의 강력한 사-아로 피부 활력·회복·보호 효과를 발휘하며, 마그네슘 유효 복합체가 수분 분자를 끌어당겨 수분감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125ml 17만8천원. 수블리마지 레센스 플리엔탈 피부의 근본적인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식물계의 보식 같은 성분인 솔라디고를 함유해 버리는 즉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편안한 보습막 같은 역할을 한다. 40ml 64만원. 모두 샤넬,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아레 비즈 파운데이션 SPF 40/PA+++** 가볍고 신축한 링크 베이지 컬러로 메이크업 전 피부결과 혼을 투명하게 정돈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더해졌다. 30ml 13만원 02-310-5025. **나스 에프터글로우 선크림** 사인 립스틱 217 트루스 오어 데어 립스틱의 선명한 컬러감과 립밤의 강력한 보습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형의 립 아포템. 입체적인 볼륨감을 선사하고, 한번의 터치만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는 지속력이 특징. 1.5g 4만3천원 080-564-7700. **사벨 코코 마드모아젤 헤어 미스트** 시트러스 열매의 산뜻함과 파슬리의 유니크함이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향. 헤어 특성에 맞게 재차진 포뮬러는 헤어를 부드럽고 풍성해 보이게 연출한다. 35ml 7만9천원 080-805-9638, www.chanel.com. **골로에 노마드 자스민 나츠크림 오 드 파퓸** 상스러운 베르가모트의 향으로 시트제 이집트 재스민 앰플루트의 관능적인 향이 풍성함을 더한다. 뉘를 이어 바닐라와 샌들우드기 은은하게 퍼진다. 75ml 19만9천원 080-850-0708. **아워글래스 앰비언트 팔레트 디퓨즈드 로즈 에디션** 파니시 파우더, 블러셔, 하이라이터 등 꼭 필요한 것만 담은 멀티 팔레트. 자연스러운 칸투아랑과 우아한 광채를 표현한다. 2.8g X 3 10만원 1644-4490. **에르메스 플랑 에르 나트리오 헬시 클로우 마네팔 파우더 이 돛토리** 세미 매트 피그먼트 파우더가 얼굴의 입체적인 윤곽이 돋보이도록 연출한다. 그에 더해 고급스러운 태닝 효과를 선사한다. 18g 14만원 02-310-5174.



(왼쪽부터 차례대로) **데코르테 비타 드 레브 허벌 컨센트레이트** 허브 성분 함유에 수분을 채워 피부 유 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번들거림이나 유분으로 인한 끈적임, 눈에 띄는 모공 등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한다. 150ml 59만9천원 080-568-3111.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바이오펠딩 핸드 크림** 부드러운 텍스처 속에 흡수력이 좋은 핸드크림. 피부에 볼륨감을 채워주면서 재생시켜주어, 실크 같은 부드러운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75ml 11만1천원 1644-4490. **리프레이쉬 퓨어 골드 레디언스 녹티널 밤** 독자적인 퓨어 골드 디퓨전 시스템으로 밤이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윤택을 선사한다. 또 함께 제공되는 녹티널 마사지 스펀이 피부에 에너지를 순환에 도움을 준다. 60ml 1백38만4천원 02-6390-1170. **갈랑 에비에 로얄 데빌 R 라뉴 앤 리페어 아이 세럼** 눈가엔 이리과 속눈썹까지 가꾸주는 아이 토털 케어 아포템. 이스클루시브 블랙비 로얄볼리를 함유해 더욱 또렷한 눈가를 선사한다. 20ml 19만6천원 080-343-9500. **클리앙스 프레스스 라 로씨옹** 방금 스킨을 마치고 나온 듯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 에센스. 문리이트 플라워의 생장력을 그대로 담은 피부를 생기 있고 탄탄하게 해준다. 150ml 15만2천원 080-542-9052. **헬레나 루빈스타인 리 클라스티 리라버리 나이트 크림** 특허 성분 프락실린™과 피부에 조밀하게 밀착되는 벤지 텍스처가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부여한다. 50ml 59만9천원 080-835-008.

magical care

단 한 번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다줄 공극의 부티 리추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라프래리 플레타늄 래어 오드-레주베이션 프로토콜 1병당 10ml 분량씩 성분으로 구성되어 한 달간 고강도 집중 케어가 가능한 앰플로, 라프래리만의 플레타늄 엘티 펩타이드를 포함한 핵심 성분이 노화되고 생기 있는 피부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1년에 4회 간헐적으로 사용한다. 8ml X 3 2억7408천원. 문의 02-511-6626

상카이 24K 골드 에너지징 크림 핵심 성분인 100% 비건 골드 펩타이드는 성분과 피부에 영웅을 보충하는 각종 자연 유래 성분을 조합한 크림. 피부의 미세한 손상을 케어하고 밀어낸 탄력을 끌어올리며, 피부 깊숙이 차곡차곡 수분을 채워 탄력인사 용으로도 촉촉하고 맑고 윤기있게 가른다. 50ml 77만원. 문의 070-4370-7511

할리나 루빈스타인 라-올라스티 라쿠바리 나이트 크림 피부 탄력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특허 성분 프록실린™(Proxylane™)을 온전히 담기 위해 75°C에서 최상의 블렌딩을 한 후 영하 20°C로 콜드 프래싱한 테크놀로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인티 에이지 크림. 고텍틱 밴드로 얼굴을 감싸는 듯 부드러운면서 쫀쫀한 텍스처가 차진 피부를 확 끌어올려준다. 15ml 22만5천원. 문의 080-835-0081

골레드로 보메 더 세럼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는 세럼으로 피부의 문을 열어 각종 활성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피부에 도포5분까지 활력 세뽀를 활성화해 피부를 깨우고, 셀프 스프래딩 차질으로 유출 성분이 고르게 퍼지도록 해 24시간 보습 효과를 유지해주며,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 피부 근본 케어를 완성한다. 75ml 39만5천원. 문의 080-564-7700

사텔 수블리마지 렉스프레 드 뉘 부족한 수면에도 충분히 잔듯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주는 나이트 컨센트레이트 세럼. 밤사이 피부를 정화하며 보습의 기능을 강화해 피부 개선 프로세스 자체를 변화시킨다. 크로노렐로드 자연 유래 성분과 특허 받은 두 가지 보습 성분을 감각적인 텍스처에 담아 확실한 라주얼 효과까지 제공한다. 40ml 75만5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스위스퍼펙션 마린 케어어 트리트먼트 총 7병이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고기능성 앰플로 제품 1병당 4ml, 총 28일간 사용 가능하다. 브랜드 시그처 성분인 셀룰라익티브 아이리시안와 케어이 추출물을 최상의 배합으로 담아낸 앰플에 골드 콜로이드와 비타민 C 등 7기능 성분이 함유된 피우더를 티트리 사용한다. 주름 개선 및 영양 공급, 브라이팅까지, 노화된 피부의 복합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6ml + 0.2g X 7 2억35만원. 문의 1644-4490 에디터 상정민

Lip Love

매일 뽀뽀하지 고민하는 그대가 꼭 주목해야 할 이번 시즌 뉴립스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디올 뷰티 디올 어워드 립스틱 652 로즈 디올 재스민 플로럴 워스 성분을 함유해 부드럽고 편안한 사용감을 지원하며, 선명한 컬러감을 선사한다. 3.2g 5만15천원. 문의 080-342-9500 자형시 뷰티 리 루즈 쉬어 뽀뽀 N52 브라운 에피스 자연스럽게 입술 위에 밀착되는 벨벳 텍스처가 특징. 여러 번 바를수록 크리미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으며, 맑고 버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오랫동안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3.4g 5만3천원. 문의 080-801-9500 상하이 립스틱 크로커스 봄과 어울리는 선명한 컬러감을 자랑하며, 허름루빈스와 영양 성분을 가득 함유해 보습과 진정 효과까지 선사한다. 사탕스마운 아인젤을 연상하는 감각적인 라미네이션 에디션 패키지도 주목할 점. 2.5g 8만3천원. 문의 070-4370-7511 구찌 뷰티 루즈 아 레브르 매트 립스틱 519 풀리 레드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느낌의 레드 컬러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을 때 제격이다. 매트한 마무리감에도 보습감이 뛰어난 포플러가 뛰어난 발림성을 선사한다. 3.5g 6만2천원. 문의 080-850-0708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사이니 립스틱 브윈 오일 2023 S/S 라미네이션 에디션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입은 패키지가 제일 먼저 눈길을 끈다. 여전 피부 톤에도 잘 어울리는 브라운과 레드 컬러를 블렌딩한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특징. 2.8g 11만2천원. 문의 02-310-5174 보이테 루주 보이테 글레르 304 에도르 드 플뢰르 편안한 쉐 텍스처가 입술에 부드럽게 녹아들 듯 밀리는 것이 장점이다. 물들 머금은 유리알 같은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부여하고, 블러밍 효과가 있어 입술을 도톰하게 연출한다. 2.5g 6만8천원. 문의 02-310-5025 에디터 윤지영

editor's Pick

낮과 밤의 기온차로 예민해진 피부가 고민이라면, 5월의 뷰티템을 주목하자.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스 스킨케어 리프트 밸브 리미티드** 처음 버릴 때 느낌이 조금 특이하지만 사용 후 피부가 좋아졌다. 차가운 얼음을 가져다 대는 듯한 콜라겐과 인산을 착감하는 쏘쏘한 텍스처가 느껴졌기 때문. 글로시한 립 제품이 잘 안 맞는 타입인데, 이 제품은 편안하게 발라주어도 가볍고 뽀얗게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스럽다. 에디터의 데일리 립이 될 듯. 4g 129천원. 문의 1644-7161_by 에디터 선정민

다들 뷰티 2023 봄여름 리미티드 에디션 디올 베르노 #333 리프주 항균 및 태안을 머금고 빛나는 모세관망을 담은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있을까? 은은한 오렌지 컬러로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작위와 파스텔이 매우 인공스럽지 않게 손끝까지 할 수 있다. 10ml 329천원. 문의 080-342-9500_by 안티 에디터 선정민

에메 비건 플러프 톤업 선비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정과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어 톤업 선블로를 애용한다. 이 제품은 하얗게 들뜨거나 카카가 전혀 안 들는 등 다른 제품들에서 느꼈던 이점은 부품을 개선했다. 톤업과 자외선으로 피부 보정 기능이 일품. 이제 정말로 피부 화장은 이 제품 하나로 끝이다. 50ml 324천원. 문의 1544-5114_by 에디터 선정민

에베다 뉴트리플리쉬 리프팅 리미티드 오버나이트 세럼 피부는 자는 동안에도 나이트 크림이나 수면 팩으로 영양 공급에 신경 쓰는데, 헤어에는 적당한 제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딱 맞춰 나온 반은 제품이다. 나이트 세럼 세럼에서 착안한 텍스처와 효과로 비로소 자는 동안 피부가 좀 더 탱글하고 생기나는 건강한 모발을 선물해준다. 100ml 629천원. 문의 02-3440-2905_by 에디터 정민호

오르시 유비셀 볼리 오 수메인 수딩 로션 다산크 작위 에디션 선블로와 함께 신축화 면서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듯한 느낌. 살짝 무거움이 있어 아침보다는 저녁에 아홉 밀만한 향과 텍스처다. 하루 종일 자외선 파수에 생기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가 극대화되도록 도와준다. 190g 629천원. 문의 031-688-5551_by 에디터 정민호

자생시 뷰티 스킨 파운데이션 리미티드 파운데이션 SPF 50+ PA++++ 기장 속 피부차에는 선택된 제품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덧칠한다. 이 제품은 스킨케어 라인에 묻히지 않고 편하게 바를 수 있다. 핑크 컬러의 파운데이션 제품을 더해 보충하면서 신축화 마무리감이 좋았다. 비루스속 은은한 장미향이 한층 생기기는 피부 톤으로 연출해준다. 11g 729천원. 문의 080-801-9500_by 안티 에디터 선정민

에스티 로더 뉴트리시프 밸리 스프리트 크림/마스크 소프트한 질감의 크림으로 부드럽게 밀려 빠르게 흡수되는 사용감은 합격. 다음 날 아침 훨씬 탄력있는 피부 톤과 매끄러운 피부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각종 외부 환경으로 자극받은 날 응급처치 아이템으로 출몰. 데일리 크림은 아이라이프 마스크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실용적이다. 50ml 929천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선정민

버버리 뷰티 비온드웨어 파운데이션 매트 파운데이션 30 라인트 뉴트리프 건조하거나 뭉칠 없이 자연스러운 발림성을 자랑하는 파운데이션. 발리는 프라미나 비온드 제품 없어도 이 아홉 단독으로 보충보충하면서 고급스러운 피부를 표현할 수 있었다. 도메이컵 후 오렌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어 유지된다. 30ml 829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윤지영

구미 뷰티 구미 팔레트 드 보메 리오오 02 라인트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은은한 컬러부터 포인트 주스에 제각각 컬러까지 세련된 구성부터 구미목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도메이컵 매트 파운데이션 피부도 포플러미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블러셔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해 만족스럽다. 6.1g 929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윤지영

오희 미라클 모이스처 세라이드 부스딩 크림 오희의 베스트셀러 미라클 모이스처 크림이 강력한 보습을 더해줄 수면 세라이드*를 5배 더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더욱 강력한 성분으로 보습 효과는 물론 자극에 민감한 피부라면 다음 날 아침 피부 장벽이 탄탄해진 듯한 느낌. 번들거리지 않고 신축화 마무리감이 좋았다. 60ml 729천원. 080-023-7007_by 안티 에디터 선정민

파이코어 디퍼렌스* 토너 패드 블루비티올 리미티드 세안 후 바로 이마와 볼에 패드를 각각 1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피부 잔여물을 닦아내듯 정돈했다. 피부가 좀 더 촉촉하고 건강해진다. 무엇보다 LHA 성분 함유로 100% 순연 펩티드 복합의 조합이 자극 없이 각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70매+180ml 321천원. 문의 1566-9830_by 에디터 윤지영

플리시니스 프로콜라겐 엘티 리미티드 부스딩 앰플 오렌지 매트리스 스프링처럼 탱탱한 시리저는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눈가와 미끈, 그리고 팔자 주름이다. 일상 생활에서처럼 사용 15분 만에 표정 주름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쓰면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펩티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시아 추출물 등의 성분은 더해 탄력은 물론 영양까지 집약해 줬을 듯하다. 20ml 829천원. 문의 1661-6656_by 에디터 정민호

오르시드 제인 콘트라베르 베르노 라미에라키의 눈부신 이름을 청명한 블루 보트에 담은 콘트라베르 베르노는 보가만 해도 시원한 향이 느껴진다. 상큼한 자몽 향을 시작으로 청이 은은하게 이어지며, 미자트로 오버리프와 샌들우드, 통가 향이 가미된 부드러운 향이 느껴진다. 따뜻한 오렌지 빛에 제각각 향수라 즐겨 부릴 것 같다. 50ml 259천원. 문의 02-3213-2088_by 안티 에디터 선정민



SHOWROOM



루이비통
루이비통 루이비통 x 쿠사마야요이 '무한의 창조' 루이비통이 일본 아방가르드 예술가 쿠사마야요이의 협업 컬렉션, 드림 2 캠페인을 공개했다. 쿠사마야요이의 작품 세계가 반영된 이번 컬렉션은 루이비통 전 세계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보인다. 문의 02-3432-1854

에르메스
2023 말라노 디자인 워크에서 만난 에르메스 홈 컬렉션 에르메스가 이탈리아 말라노에서 열린 디자인 워크에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홈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가죽과 나무 소재가 어우러진 임체어, 수공예 자수와 텍스타일 레터링이 돋보이는 라그를 비롯해 제품의 본질을 표현한 디자인 제품을 공개했다. 문의 02-542-6622

펜하리곤스
펜하리곤스 솔라리스 EDP 영국 로열 니치 퍼퓸 브랜드 펜하리곤스에서 브라티시 태일즈 라인인 솔라리스 EDP를 선보인다. 태양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신제품은 싱그러움 감금 향을 시작으로 부드러운 꽃 향이 감싸주며, 백년화과 바닐라를 기미한 부드러운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문의 080-363-5454

둘 페리옹
둘 페리옹 본티지 2013 출시 삼페인의 대명사, 둘 페리옹이 글로벌 아티스트 레이디 가가와 협업해 둘 페리옹 본티지 2013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을 통해 선보인 신제품은 약 10년간의 긴 숙성을 통해 삼페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풍성한 보디감에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트러스 스페이스 향으로 마무리된다. 문의 02-2188-5100

파레티 골프
파레티 골프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IF 디자인 어워드 2023 본상 수상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파레티 골프의 플래그십 매장 도산점이 디자인 분야의 최고 권위상,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본상을 받았다.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니즈디자인에서 설계한 파레티 도산점은 골프의 화려한 순간을 담은 '피날레를 콘서트'로 했으며,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1644-7781

토즈
토즈 팀 워커 프로젝트: 장인 장인의 미학 토즈가 세계적 인사로작가 팀 워커와 함께 장인 장인의 미학을 담은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여러 도구와 이를 사용하는 장인의 손기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해 영상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8-0442

호간
호간 H-백 & H630 스니커즈 프리미엄 스니커즈 브랜드 호간이 플러럴 지수가 돋보이는 여성 H-백과 H630 스니커즈를 소개한다. 라피아 소재의 H-백은 H 로고 버클과 다채로운 색감이 포인트이며, 가죽과 캔버스 소재의 H630 스니커즈는 인솔에 메모리폼을 더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2-3479-1593

펜디
2023 S/S 펜디 by 마크 제임스 글로벌 패션 하우스 펜디가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크 제임스와 협

페라기모
페라기모에서 2023 S/S 시즌 새로운 니마 스니커즈를 선보였다. 스니커즈 측면에 브랜드의 갓너니 로고를 모티브로 한 3개의 아웃솔을 매치해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다. 신축성 있는 니트, 누백, 스포츠 가죽 등을 믹스 매치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70-4784-4026

로로피아나
배우 한빈과 함께 로로피아나 스페셜 에디션 이탈리아 명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배우 한빈과 함께 제작한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서머 워크 슈즈와 베이스를 캡모자 선별하며, 로로피아나 오프라인 매장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문의 02-6200-7719

타이소
타이소 NEW 씨스타 1000 워터 40mm 컬렉션 타이소의 씨스타 1000 스포츠시계 컬렉션에서 직경 40mm 모델을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신제품 컬렉션은 높은 정밀성과 기능성을 위해 브랜드의 칼리버 01을 장착해 현대 드레스 워치의 정교함을 담아냈다. 문의 02-792-4371

브라이틀링
브라이틀링 프리미에르 B01 크로노그래프 42 컬렉션 브라이틀링에서 1940년대에 출시한 프리미에르 컬렉션이 프리미에르 B01 크로노그래프 42 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신제품 컬렉션은 높은 정밀성과 기능성을 위해 브랜드의 칼리버 01을 장착해 현대 드레스 워치의 정교함을 담아냈다. 문의 02-792-4371

타이피
타이피 Tiffany T1 컬렉션 1백36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타이피가 5월의 기프트로 Tiffany T1 컬렉션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핸드드 밴드를 제공한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인 T를 모티브로 탄생한 Tiffany T1 컬렉션은 핑크, 아이언, 스페이시, 블랙 컬러까지 총 4종의 하이라이 컬러를 정교한 크로노미터로 표현했다. 문의 1522-9065

스워브스키
스워브스키 X 마블 홈 컬렉션 스워브스키가 마블과의 첫 번째 컬래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마블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은 헐크,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블랙팬서까지 총 4종의 하이라이 컬러를 정교한 크로노미터로 표현했다. 문의 1522-9065

JEWEL & WATCH





BALLON BLEU

DE

Cartier